

V.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

V.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

(2003. 2. 10. 대학원 제424호)

1차 개정 2003. 9. 5. 대학원 제195호

I. 개 요

학위논문 작성 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칙을 만드는 것은 상호간에 분명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논문작성에서 사용되는 문자나 기호, 구두점, 도표, 그림 등을 명시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법칙을 따른다면 일상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지침에 의해 작성된 논문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을 쓰는 연구자의 편의성도 도모함과 아울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자료의 제시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 작성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서 논문작성법의 원리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양식을 따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본 대학원의 학위논문 지침은 APA양식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의 디자인

1) 논문은 한글 2004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용지 : 4×6배판(190×260mm)

(2) 문단모양

① 용지여백 : 위쪽 30mm, 머리말 0mm

왼쪽 25mm, 오른쪽 25mm

아래쪽 15mm, 꼬리말 12mm

② 줄간격 : 160 또는 180

(3) 글자모양

① 글꼴 : 신명조

② 크기

- 본문 : 10 또는 11 point
- 각주 : 본문 보다 1 point 작게

2) 논문의 질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연구의 디자인과 관리이다.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논문의 질적 문제와 함께 논문의 디자인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사항은 논문작성 지침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검토함을 포함한다.

- (1) 논문제목에 있어서 대상, 독립변인, 종속변인 등의 관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 (2) 확실한 기초자료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여서는 안된다.
- (3) 논문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논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약속을 지키고 심지어는 쉽표 하나라도 제자리에 찍혀야 한다.
- (4)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디자인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 (5) 논문은 창의적인 접근을 요구하나 선행연구가 없는 논문의 작성은 가능한 연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즉, 평범하고 일상적인 접근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산출되는 논문작성을 권한다.
- (6) 논문의 검증성이 요구된다. 사실의 근거로서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론의 도출에 따른 특정한 과정의 방법론을 거치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설명된 이론은 실제적 장면에서 적용될 때 가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 (7) 논문은 평이하게 진술하고, 사고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연히 난해한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여서 일정한 양식을 맞추어 정리하였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일관성 있게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면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 (8) 좋은 글은 재능 못지않게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근사한 표현보다 올바르고 적절한 표현, 통속적인 용어나 어법보다 표준적인 어휘와 문법에 맞는 어법, 사실들과 생각의 효과적인 조합 및 제시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만이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다. 올바른 국어 표현에 관한 문헌(예, 미승우, 1988; 이오덕, 1989)과 한글사전을 자주 참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논문 작성을 위한 평가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본 논문이 해당되는 분야에 중요한 기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연구문제의 제기가 연구의 의의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 (2)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설문지를 사용할 경우에 만족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 (3) 측정된 결과는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변치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 (4) 논리적 비약이 없고, 혼란스럽지 않고 애매하지 않는 논리적 접근이 가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5) 연구대상의 문화적, 사회적 편차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 (6) 연구결과가 출판되어서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논문제목

- (1) 논문 제목은 연구변인의 설정을 분명히 하고 간결하게 제시하되 제목의 길이는 가급적 15단어를 초과하지 않는다.
- (2) 논문제목에서 약자는 쓰지 않는다.

5) 요약

논문을 요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요약문은 본론의 첫 페이지에 논제와 함께 게재한다.
- (2)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결과, 시사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3) 요약문은 논제를 포함하여 한 페이지 속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장별 구성 개요

1) 서론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문제의식, 연구목적 등이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연구의 주안점이 무엇인가?
- (2) 연구와 관련된 문제의식과 실험 디자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 (3) 연구의 이론적 적용은 무엇이고,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 접근과 목적은 무엇인가?
- (4) 이론적 배경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문헌개관 또는 선행 연구 고찰로 대체할 수 있다.
- (5)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되는 이론이나 결과들은 논문의 제목에서 제시하는 실험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등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또한 일관되어야 한다.
- (6) 실험연구인 경우는 이론적 배경에서 가설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 (7) 상반되는 이론이나 연구의 논의에서 서술된 내용은 이론적 배경에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방법

연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서술되어야 한다.

- (1) 참가자(실험연구는 피험자, 조사연구는 조사대상자로 지칭) :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누가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대상을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도구 : 실험, 조사 또는 평가에 사용되는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논문의 성격에 따라 도구의 사용방법 등이 서술되어야 한다.
- (3) 절차 :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리되는 각 단계를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결과

연구결과는 수집된 자료나 통계치를 요약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발견된, 또한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결론을 정당화시키는데 충분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서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접근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의 점수나 원자료(raw data)는 서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항은 부록을 이용하여야 한다.

- (1) 도표나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고 경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비록 도표나 그림이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는 도구임은 분명하나 반복하여 제시하는 것은 피하고 가장 간결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2)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서술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가 설의 수용 또는 부정 등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통계의 자료가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접근은 가장된 표현이다.

4) 논의

논의에 있어서는 가능한 논쟁, 일반적인 사항, 이론적 이해의 논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논의는 연구결과와 결론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적 자료와 이론에 기초하여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의의 내용을 서술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1) 논의 내용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2)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
- (3) 결론과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내용과 논의의 관점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 (4)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 (5) 현장과 이론에 실제적 적용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5)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연구자가 참조한 문헌이나 자료들로서, 후속 연구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주의 깊게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인용은 참고문헌의 목록에 나타나야 하며,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의 목록은 꼭 필요하고, 관련성이 깊은 문헌들로 구성한다. 참고문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6) 부록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서술이 본문의 가독성을 낮추거나, 흐

름에 방해가 될 때 부록을 이용하도록 한다(5장 참조). 부록에 적합한 재료의 예들로, (1) 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었고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2) 출간되지 않은 검증 통계 방법 및 그 정당화, (3) 복잡한 수학적 증명, (4) 자극 재료의 목록(예, 언어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들), (5) 복합적인 장비에 대한 상세한 묘사, (6)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한 척도, (7) 결과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통계 분석 결과 등이다. 독자가 연구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재검하는 데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될 때에만 부록에 포함시킨다(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 2001).

Ⅱ. 논문작성법

1. 구성

1) 서두

- (1) 표제지(별지1)
- (2) 내표지(별지2)
- (3) 목차
- (4) 표 목차
- (5) 그림 목차
- (6) 요약

2) 본문

- (1) 서론
- (2) 방법
- (3) 결과
- (4) 논의

3) 참고문헌

4) 초록(별지3)

5)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2. 항목별 작성요령

1) 서두

- (1) 표제지(양식1)

(2) 내표지(양식2)

(3) 목차(계층기호) : 목차의 단계별 구성은 국·영문 모두 다음과 같이 한다.

(예시 1)

<p>I. 목차(가운데, 진하게, 글자크기 15)</p> <p>I. (한 칸 띄우기, 진하게, 글자크기 13)</p> <p>1. (한 칸 띄우기, 글자크기 12)</p> <p>(1) (칸 띄우기 없음, 글자크기 11)</p> <p>① (칸 띄우기 없음, 글자크기 11)</p> <p>② (칸 띄우기 없음, 글자크기 11)</p>

(4) 표 목차(형식은 목차와 같음)

한글의 경우 : <표 1>

외국어의 경우 : <Table 1>

(5) 그림 목차(형식은 목차와 같음)

한글의 경우 : 그림 1

외국어의 경우 : Fig 1

3. 본문

일반적으로 논문은 서론, 본문 및 결론의 순으로 구성하나, 연구방법이나 분야에 따라 구성양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본문 부분은 본론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 장의 개별적인 제목으로 표현한다. 분야별 논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계 : 목차, 서론, 본문, 결론, 참고문헌, 초록, 부록

자연 과학계 : 목차, 서론, 관계이론(이론적 배경),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참고문헌, 초록 또는 목차, 서론, 이론, 실험,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초록, 부록

4. 구두점 및 논문작성 세부지침

1) 마침표(.)

- (1) 모든 문장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곳에 마침표를 찍는다.
- (2) 인용 저자가 있을 경우에 인용된 저자를 쓰고 마침표를 찍는다.
- (3) 괄호를 열어 부수적인 설명이 될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2) 쉼표(,)

- (1)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열거될 때, 쉼표를 사용한다.
- (2) 부수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때 쉼표를 사용한다.
- (3) 두 개의 종속절이나 접속사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 (4) 1,000이상의 숫자에서 세 자리 단위로 쉼표를 사용한다.

3) 세미콜론(;)

- (1) 접속사에 의해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독립절을 분리시킬 때 사용한다.
- (2) 이미 쉼표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4) 콜론(:)

- (1) 비유를 나타낼 때
- (2) 참고문헌에서 출판 장소와 지명을 분리할 때
- (3) 논문의 제목에서 부수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때

5) 따옴표(“ ”)

- (1) 새로운 용어, 주의를 요하는 용어 또는 사투리와 같은 용어를 기술할 때 따옴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첫 단어에서만 사용하고 다음 단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직접인용문을 사용할 때
- (3) 참고문헌 내에서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줄임표(…)

직접 인용문에서 줄임표를 사용할 경우 세 개의 줄임표를 사용한다.

7) 괄호()

- (1) 한 문장에서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 (2) 표나 도표를 문장의 마지막에서 참고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 (3) 문장 내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 (4)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연도를 표시할 경우
- (5) 요약된 약어를 기술할 경우
- (6) 한 문장 내에서 식별 또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서술이 필요할 경우
- (7) 수학적 공식을 사용할 경우

8) 영어의 대소문자와 소문자

- (1) 저자의 이름, 지명의 이름, 고유명사 등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2) 일상적인 용어를 기술할 때나 본문에서 용어를 설명할 때 괄호를 열어서 소문자를 사용한다.

9) 영어의 약어

이미 서술된 영어의 약어를 서술할 경우

10) 통계 처리 결과

- (1) p 수치 : $p < .05$ 또는 $p < .01$ $p < .001$
- (2) t 수치 : $t = .34$
- (3) 신뢰도 : $r = .78$ 또는 $r^2 = .89.00$
- (4) F 수치 : $F(1, 751) = 7.12, p < .01$
(F 처리를 한 결과에서 자유도가 1이고 도수가 751이며, F수치는 7.12를 나타내고, 그 결과를 확률로는 .01보다 작다는 의미이다)

11) 인칭과 수

- (1) 일반적으로 3인칭을 사용하나, 가급적이면 1인칭을 쓰지 않는다. 특히 인칭 복수형인 “우리”를 쓰지 않을 것이며, 1인칭의 경우 “연구자”, “필자”, “본 연구” 등과 같은 간접적인 표현이 좋다.
- (2)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10이하인 숫자의 경우는 하나, 둘, 셋, … 또는 일, 이, 삼 … 또는 첫째, 둘째, 셋째, … 등과 같은 표현이 허용된다.

12) 외래어 및 인명

- (1) 논문에는 외래어의 표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사용한다. 특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관광부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문화관광부, 2000)을 따른다.
- (2) 가급적 모든 술어는 역어로 사용하되, 반드시 괄호 안에 원어를 삽입한다. 이때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원어를 쓴 다음에 약어로 다시 표기할 때는 원어를 쓰고 콜론(:)을 찍은 다음에 약어를 대문자로 기재한다.
- (3) 적절한 역어가 없거나 공통된 역어를 발견하기 어려운 학술용어는 원어를 그대로 표기한다.
- (4) 고유명사, 인명의 경우는 역어를 쓰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5) 논문의 본문에서 인명의 표기는 한국, 중국명은 성명을 모두 기입하되, 일본명과 구미 명은 성씨만을 기입해도 좋다. 인명에는 존칭의 사용을 생략한다.

13) 인용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분야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인용의 지나친 남용은 오히려 논문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용할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의 논문에서 인용된 것이면 인용의 근거를 양식에 맞추어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직접인용

직접인용이란 관련논문의 내용을 맞춤법 하나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법조문 등과 같은 성격의 내용이나, 관련 논문에서 특히 중점을 두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직접인용을 하게 된다. 직접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3행 이내일 경우에는 문장 속에 따옴표(“ ”)로 표시해도 되고, 또한 줄을 바꾸어 다른 문단으로 따옴표 없이 시작할 수도 있다. 이때 인용되는 부분의 앞뒤에 각각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는 본문 보다 1 포인트 작게 조절하여 본문의 내용과 직접인용 부분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직접 인용되는 부분이 쉽게 함과 동시에 함께 페이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인용을 하고자 하는 문단의 길이가 길어지면 좌단 여백에서 세 글자 들여쓴 문단을 신명조체로 본문 보다 1 포인트 작은 크기로 써주고, 문장의 끝에 인용한 페이지를 제시한다. 이럴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간접인용

간접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용되었던 간에 참고된 문헌은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그 출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3) 재인용

인용은 1차적 지표(primary source)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1차적 자료를 참고할 수 없을 때는 남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再引用) 또는 2차인용(secondary source citation)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재인용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① 김영운(1990 : 홍길동, 1998에서 재인용)은 ...
- ② ...을 제시하였다(Hoving, 1979 : 김경애, 1991에서 재인용).
- ③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ishra, 1951 : Triandis, 1989에서 재인용).

14) 본문에서의 참고 및 인용

본문 중에 저자명과 간행연도, 페이지 등을 ()로 묶어 표시하고,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일괄 처리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주나 후주는 현재 사용하

지 않고, 내주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내주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 저자명과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문장의 앞 또는 뒤에 삽입할 수 있다. 여러 저자를 나열할 경우에는 한국, 일본, 중국, 서양의 저자 순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순서는 저자 이름에 기초하여 한글의 자, 모음 순과 영어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출판년도에 기초하여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또한 저자와 저자 사이를 구분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1) 단독연구

홍길동(1993)에 의하면..., 이들 연구(김길동, 1990; 홍길동, 1980)에 의하면..., ...라는 견해도 있다(홍길동, 1985; Haggett, 1990; Schaefer, 1989)

(2) 공동연구

- ① 2인 : 홍길동, 김길동(1976)은 ..., Robinson과 Bamford(1980)는 ...,
- ② 3명이상 : 홍길동 등 (1987)은 ..., Robinson 등 (1980)은 ... 또는 ... (홍길동 외, 1987), ... (Robinson et al., 1987)

(3)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발행한 여러 참고문헌들을 인용할 때는 발행연도 순으로 적는다.

홍길동(1991a, 1991b)은 ... 또는 ... (홍길동, 1991a, 1991b).

(4) 문헌의 특정부분을 직접 인용할 때는 발행연도 뒤에 해당되는 페이지(쪽)를 적는다. 직접 인용한 부분의 페이지가 한 장일 경우에는 p. 350과 같이 쓰고, 두 장 이상일 경우에는 p. 350-352와 같이 저자와 출판년도 다음에 기록한다.

홍길동(1995, p. 250)은 “.....” 또는 “.....” (홍길동, 1995, p. 350-420).

그러나 3행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인용한 페이지를 저자와 함께 출판년도 다음에 기술하는 방법 또는 문장의 마지막에 직접 인용한 페이지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과 같이 예를 제시한다.

인지심리학의 본론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Reynolds와 Flagg(1983)은 아래와 같이 역설하였다.

이것은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하나의 안내책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각하고, 변형시키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보가 있는 일을 하는 정상 성인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겨우 이해될 뿐이다. 왜냐하면 인지심리학 분야

가 겨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p. 4)

(5) 신문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 (매일신문, 1995, 5, 1).

15) 표(表)와 그림(圖)

수집한 자료나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표나 그림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보다 더 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으로 제시하면 더욱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표와 그림은 반드시 문자만으로 의사전달이 불충분할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료의 반복을 삼가해야 한다.

(1) 표의 작성요령

본문에서 표의 위치는 표에 대한 언급이 있는 직후가 가장 이상적이다. 표가 한 페이지 미만인 경우 처리하기 쉬우나 그 이상일 경우, 즉 2페이지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양면이상에 표시할 수 있고, 또 큰 종이에 인쇄하여 사이에 접어 넣을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축소하여 한 면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표 제목은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한다. 만일 제목에 약자가 나타난다면 괄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만일 긴 설명이 필요하다면, 표 아래에 주를 첨가한다. 표의 제목은 표의 위쪽 왼편에 위치하도록 하며 중고딕체로 표기한다. 표 번호에 붙여서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어 제목을 기술한다. 표 제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들여쓰기나 내어 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예시 4 참조).

표 안의 표제 단어(heading)는 자료의 조직 방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 내에 가장 폭을 넓게 차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표제 단어가 그보다 크지 않도록 한다. 보통 쓰이는 비전문적 약자는 설명 없이 쓸 수 있으나, 전문용어, 집단 명 등은 주에 설명을 덧붙인다. 표의 각 열에는 반드시 표제 단어가 있어야 하며, 맨 왼쪽 열(stub column)에는 주요 독립변인이 제시되며, 하위 집단이 필요하다면 따로 열을 만드는 것보다는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 좋다(예시 2). 표제 단어는 중고딕체로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크기로 작성한다.

(예시 2)

좋지 않은 예		권장하는 예	
학 년	사전교육여부	집 단	
중 학 생	받았음 받지 않았음	중 학 생	사전 교육받았음 사전 교육받지 않았음
고 등 학 생	받았음 받지 않았음	고 등 학 생	사전 교육받았음 사전 교육받지 않았음

표에서 세 가지 동류의 주(註)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 상세 주, 그리고 확률 주이다. 일반 주는 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약자나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 보통은 “주” (중고딕/본문크기) 라고 시작한다. 상세 주는 특정한 열이나 행을 가리키고 위 첨자로 표시한다. 확률주는 검증의 유의미도를 나타내며, 별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정해진 수의 별표가 의미하는 확률은 한 논문 내에서 일정하도록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밝힌다). 별표의 수가 적을수록 높은 확률을 가리키도록 한다(예, * $p < .05$, ** $p < .01$).

표에 있는 둘 이상의 값들을 비교하고 차이의 유무를 보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문자 아래 첨자를 쓰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주의 순서는 일반 주, 상세 주, 그리고 확률 주의 순서로 제시하며, 왼쪽 여백 없이 새로운 줄에 시작한다. 주는 반복 설명을 피하는 데 유용하며, 어떤 정보의 위치를 주로 만들며 표에 삽입시킬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독자가 어떤 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확률 값이 다양하다면 별도의 열을 구성하여 삽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며, 단순히 반복되는 값들이라면 주에 삽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예시 3 참조). 주 달기에서 주의 줄 간격은 130으로 한다.

표에서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줄만 사용한다. 보통은 줄을 사용하기보다 적절하게 여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표에서는 세로 테두리선을 쓰지 않는다. 가장 바깥 가로 선은 굵은 선을 쓰고 안쪽 가로 선은 가는 선을 사용한다. 만일 타자기를 사용하여 초고를 준비한다면 열 간격을 널찍이 만들고 표 내의 줄 맞춤에 유의한다. 문서편집기를 사용하여 표를 만드는 경우에도 세로줄은 출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다(예시 3 참조).

(예시 3)

<표 8> Phoria, 경직화 후 상승 효과(적응 효과), 그리고 지적 오차(degree)

녹색 필터로 가린 눈	적응 전		적응효과	적응 후	
	Phoria	지적 오차		Phoria	지적 오차
좌측눈 <i>M</i> (n=17) ^a <i>SD</i>	-7.4 3.6	-1.7 2.7	+2.6 3.6	-7.3 3.8	+1.7 4.1
우측눈 <i>M</i> (n=19) ^b <i>SD</i>	+7.7 3.1	+2.7 4.3	-2.5 2.3	+7.1 3.0	-1.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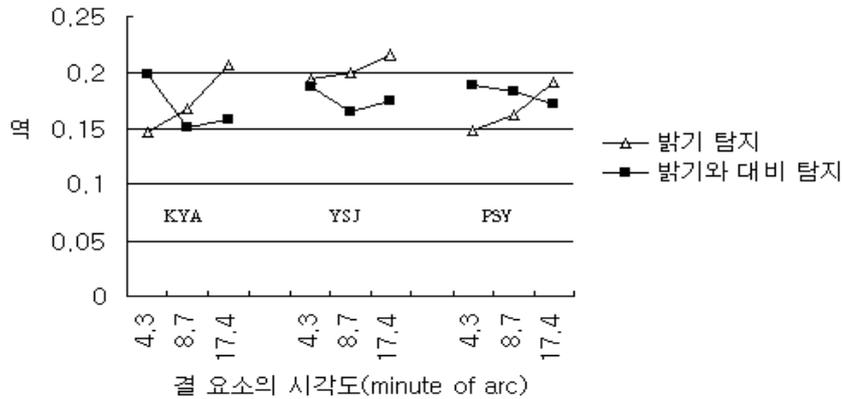
주) “ - ” 부호와 “ + ” 부호는 각각 정면의 좌측과 우측을 나타낸다.
 a 경직 후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관찰자 5명 제외.
 b 경직 후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관찰자 3명 제외.

· 박권생(2000). 단안 방향 지각에 관여하는 안구 위치 정보, 한국심리학회지 : 실험 및 인지, 12, p. 174에서 원용됨.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허락을 받았음.

(2) 그림의 작성요령

그림설명은 그림의 설명과 제목의 역할을 하며 중고딕체로 본문 크기로 쓴다. 단순히 “응시 기간” 이라고 한 것보다는 “실험 1에서 보여준 자극제시와 눈 응시 사이의 관계의 함수로서 응시 기간” 이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된다. 설명 문구 다음에 그림을 명확히 해줄 정보, 예를 들면, 범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측정단위, 기초 약자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서, 독자가 그림이 주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문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주어야 한다. 만일 변산성 표시줄(error bar)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표준편차인지, 신뢰한계 또는 신뢰구간인지를 명시하고, 사용된 표본 크기도 언급하도록 한다. 또한 그림 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표시를 하였다면, 그림 설명에 그 확률값을 포함시킨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한글 문서편집기에서는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표의 제목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예시 4 참조).

(예시 4)



<그림 10> 시각도(visual angle)에 따른 각 실험 참가자의 탐지역 변화

• 남중호(2000). 부적 반정류 과정에 의한 결 경계 탐지. 한국심리학회지 : 실험 및 인지, 12, p.162에서 인용됨.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게재 허락을 받았음.

III. 참고문헌, 초록 및 부록

1. 참고문헌(reference)

서론, 본론, 결론 등에서 제시한 모든 참고문헌은 일괄 정리하여 논문의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에서 수록해야 한다.

- 1) 정기간행물이나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끝나는 페이지까지를 기입한다.(예: 150-165). 그러나 참고한 서적의 경우에는 페이지를 기록하지 않는다. 참고문헌의 내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두 줄부터 모든 내용을 들여쓰기 4를 한다.
- 2) 외국에서 출판된 서명과 정기 간행물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를 사용한다.

- 3) 외국의 경우,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를 사용하게 되나, & 앞에 ,(쉼표)를 찍는다. 본문에서는 저자가 두 명일 경우에는 & 앞에 쉼표를 찍지 않는다.
- 4) 본문에서 3인 이상일 경우에 첫 저자의 성(last name)만을 기재하고 다음에 et al.,을 사용하나,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저자의 성과 이름(첫 글자의 대문자)을 기재해야 한다.
- 5) 단행본의 경우에 국내 서적은 서명을 굵게 표시하고, 외국의 서명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밑줄을 긋지 않는다.
- 6)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서명은 일반 글씨체(신명조)를 사용하고, 정기간행물의 이름과 권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호와 페이지의 처음과 끝은 일반 글씨체로 쓴다.
- 7)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한국어 출판물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외국 출판물을 제시한다. 외국 출판물의 경우에 동양 문헌, 다음에 서양 문헌의 순서로 제시한다. 동양 문헌의 제시 순서는 해당 국가명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의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면 국내 문헌, 중국 문헌(China), 일본 문헌(Japan) 그리고 서양 문헌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 8) 참고문헌의 작성시 필요한 참고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저자명(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발행연도, 서명(국내판은 굵게, 외국판은 이탤릭체), 판수(초판은 표시하지 않음), 출판지 : 출판사.

① 홍길동 (1995). 한글 맞춤법. 대구: 대구출판사.

② Cone, J. D., & Foster, S. L. (1993). *Dissertations and theses form start to finish psychology and related field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③ Semett, R. (1986). *The fall of public nan*, London: Routledge.

(2) 학술지 논문 : 저자명(성을 앞에, 이름은 뒤에). 발행연도,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면수.

① 정기간행물 저자 1명

Bekerian, D. A. (1993). In search of the typical eyewitness. *American Psychologist*, 48, 574-576.

② 정기간행물 저자 2명

Klimoski, R., & Palmer, S. (1993). The ADA and the hiring process in organizations.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5(2), 10-36.

③ 정기간행물 저자 3명 ~ 5명

Borman, W. C., Hanson, M. A., Oppler, S. H., Pulakos, E. D., & White, L. A. (1993). Role of early supervisory experience in supervisor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443-449.

(3) 번역서의 경우

① Yalom, I. V. (2001).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최윤미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1에 출판)

② Hofstede, G.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Culture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차재호와 나은영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1년에 출판)

(4) 익명의 연구나 저자가 없는 연구: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 제목 두세 단어를 저자명과 같이 취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나다 순서(영문은 알파벳 순)에 제시하고 괄호 안에 익명(영문은 Anonymous)이라고 표기 한 후 쉼표(,)를 찍고 출판연도를 적는다. 그리고 저자가 없는 경우도 연구의 제목을 저자명으로 취급하여 그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에 해당하는 자리에 제시한다.

① 아동의 언어는 (익명, 1968). 초기발성. 33-42, 서울: 샘터.

② 청소년기의 반항 (익명, 1997). 청소년. 113-114, 서울: 청구사.

③ Senior Citizens (Anonymous, 1997), *Human Development*, 13, 268-276. New York : Basic Books.

(5) 석사 혹은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① 홍길동. (1995). 용비어천가의 연구. 미간행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② Kim, J. H. (1993). *Joint Decision of Housing Demand and Home Purchase Timing with Imperfect Capital Marke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USA.

- ③ Wilfley, D. E. (1989). *Interpersonal analyses of bulimia: Normal-weight and obese*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④ Almeida, D. M. (1990).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Consequences for fathers' stress and father-child rel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 ⑤ Pendar, J. E. (1982). Undergraduate psychology majors : Factors influencing decisions about college, curriculum and care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 4370A-4371A.(University Microfilms Mo. 82-06, 181)
- ⑥ Foster-Havercamp, M. E. (1982).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teacher training and directed teaching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1*).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 4409A.
- (6)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저자명 바로 뒤에 발표된 연도를 괄호로 묶어 제시하고 마침표를 찍는다. 이어서 연구의 제목을 적고 마침표를 한 후 중고딕체(영문은 이탤릭체)로 게재된 간행물명, 면수, 발표 일자 및 장소를 예시처럼 적는다.
- ① 최상진 (1999). 문화심리학: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 심리학회 하계 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1-20, 8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제2인문관.
- ② 정진경 (1999). 남북한간 심리적 화합의 준비작업 : 문화이해.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 대회 발표 초록집, 222-224, 8월 20-21일. 서울 : 연세대학교 제2인문관.
- ③ Orleans, L. A. (1977). China's Birth rate, death rate, and population growth. *A Report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 U. S. House of Representative*. 95th Conference, 1st Session, Washington, DC.
- (7) 비정기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미간행 발표 자료나 연구일 경우
- ① 최윤미 (1995). 문제 해결 중심적 전화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전화상 답콜로 키움, 10월 15일.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② 남기덕 (1999).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편집위원회 결산보고.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연차 총회, 10월 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홍무관.
- ③ Lichstein, K. L., Hohnson, R. S., Womack, T. D., Dean, J. E., & Childers, C. K. (1990, June). Relaxation therapy for polypharmacy use in elderly insomniacs and noninsomniacs. In T. L. Rosenthal (Chair), *Reducing medication in geriatric population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Behavioral Medicine, Uppsala, Sweden.

(8) 마이크로 필름에서 참고한 문헌

- ① Gottfredson, L. S. (1980). How valid are occupational reinforcer pattern scores? (Report No. CSOS-R 292).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82 465)

(9)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의 인용: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에 포함된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적고 마침표를 하고서 장의 제목을 적는다. 그리고 전체 책을 엮은 편집자의 성명을 적고 한 칸 띄고 괄호 안에 편집일 경우 ‘편’, 저서일 경우 ‘저’ (영어는 편집자명 앞에 “In” 을 넣어 시작하여 적고 괄호 안에 Ed. /편집자가 복수일 경우 Eds.)라고 표시한 후 책의 제목을 중고딕체(영어는 이탤릭체)로 적는다. 그리고 저서명에 이어서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p.로 표시하여 적어 넣는다(예 1). 단 영문서적의 경우에는 편집자명 앞에 “In” 을 삽입한다. 괄호로 묶은 쪽수 다음에는 마침표를 찍고 출판 장소와 출판사명을 적고 마침표를 한다(예 2).

- ① 안신호 (1997). 직장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김명언과 박영석(편). 한국 기업 문화의 이해 (p. 388-440). 서울: 오름.
- ② Yalom, I. V. (1994). Momma and the meaning of life. In B. Yalom(Ed.), *Yalom readers* (p. 155-200). NJ: Prentice-Hall.

(10) 출판 중에 있는 도서

- ① 김병하 (인쇄중). 청각장애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사 특수교육.

② Cohen, J. (in press).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al sc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1) 여러 간행물을 여러 저자의 이름으로 출판 중에 있는 서적

① Woodward, J. T. (in press). Children's learning systems. In J. T. Woodward, A. Pimm, S. S. Keenan, M. N. Blum, H. A. Hamner, & P. Sellzer (Eds.), *Research in cognitive development : Vol. 1. Logical cognition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2. 초록(Abstract)

1) 한글 또는 한글·한문 논문에는 외국어(주로 영어)초록을 , 외국어 논문에는 한글 또는 한글·한문 초록을 논문 말미에 첨부한다.

2)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 페이지에 따로 마련한다.

3) 초록의 제목은 외국어의 경우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첫 자만 대문자로 표시한다. 단 부제를 같이 서술할 경우에는 본제의 끝에 띄우기 없이 세미콜론을 찍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일괄 처리한다.

4) 초록의 내용은 간결해야 하며,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과의 핵심적인 부분과 제언 등을 포함한다.

5) 영문초록을 작성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동태로 표현하기보다는 능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O) Dunsing (1990) conducted the survey ...

(X) The survey was conducted by Dunsing (1990) ...

(2) 초록은 논문을 완성하고 난 뒤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O) Dunsing discussed the same question ...

(X) Dunsing discusses the same question ...

(3) 초록에 포함될 내용 중에 과거의 행동이나 상태가 일정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일 때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한다.

(O) Since that time researchers have used the same method ...

3. 부록(Appendix)

본문에서 취급하기가 너무 번잡한 자료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자료를 수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나 그림을 부록에 따로 모아서 본문을 간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부록에 수록되는 사항이 많은 경우는 부록 I, II ...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각 학문계열 양식에 준한다.

참 고 문 헌

문화관광부 (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http://hangeul.or.kr/index.htm>.

미승우 (1988). 새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서울: 어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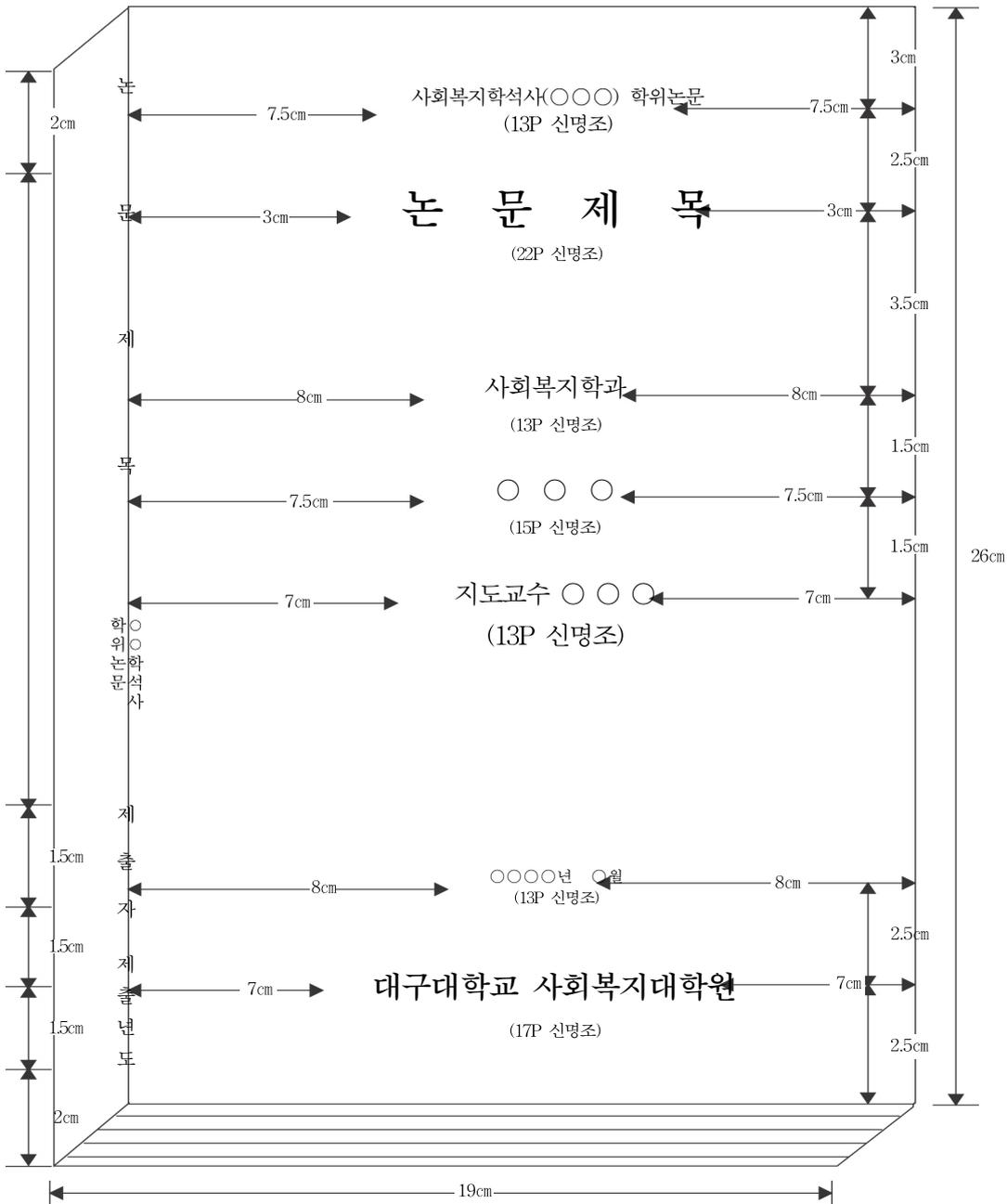
이오덕 (1989). 우리글 바로쓰기. 서울: 한길사.

권석만, 남중호, 박영석, 박창호, 최윤미, 한규석 (2001).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 서울: 시그마프레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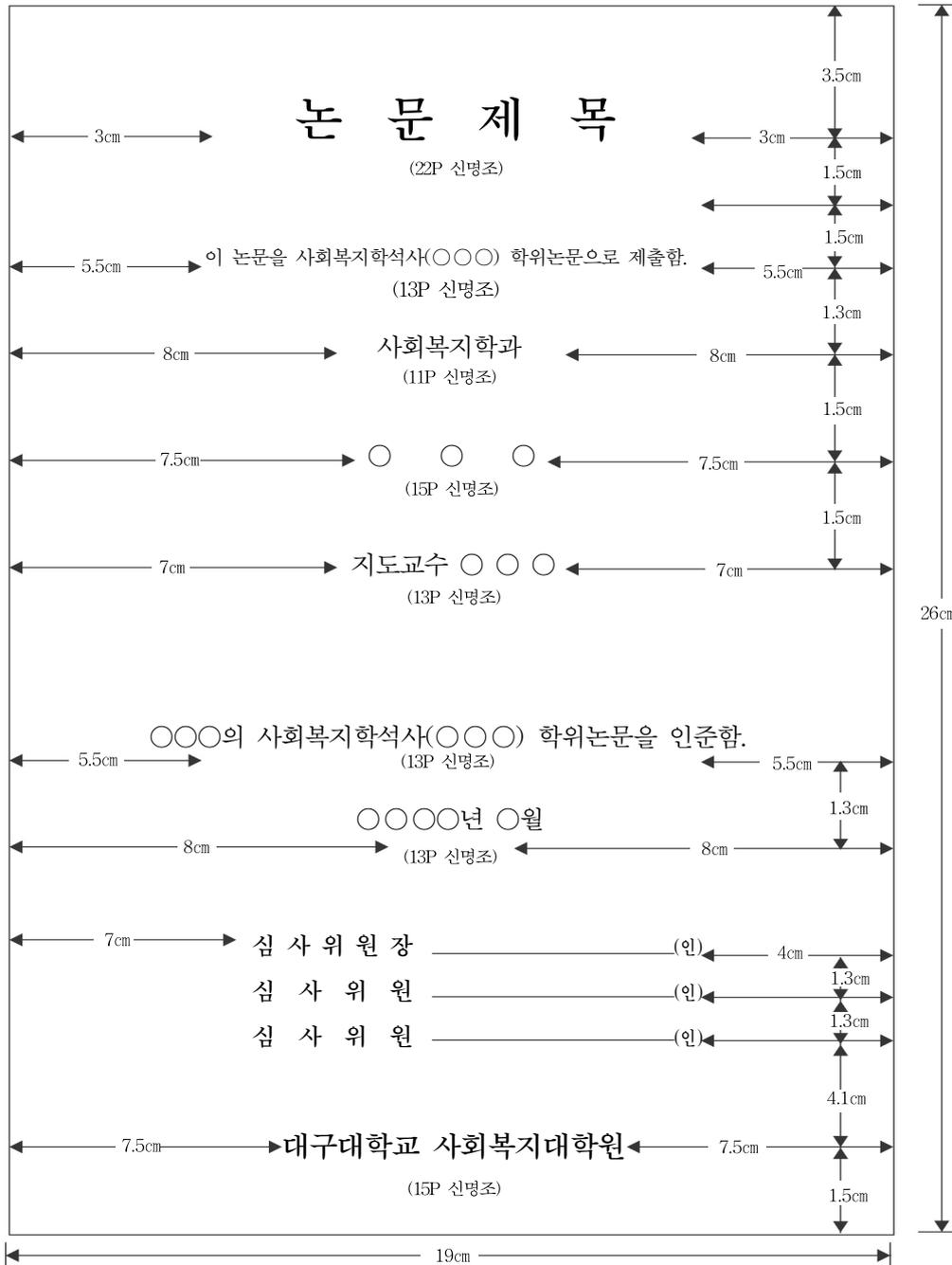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표제지 양식



* 제출년도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6월 또는 12월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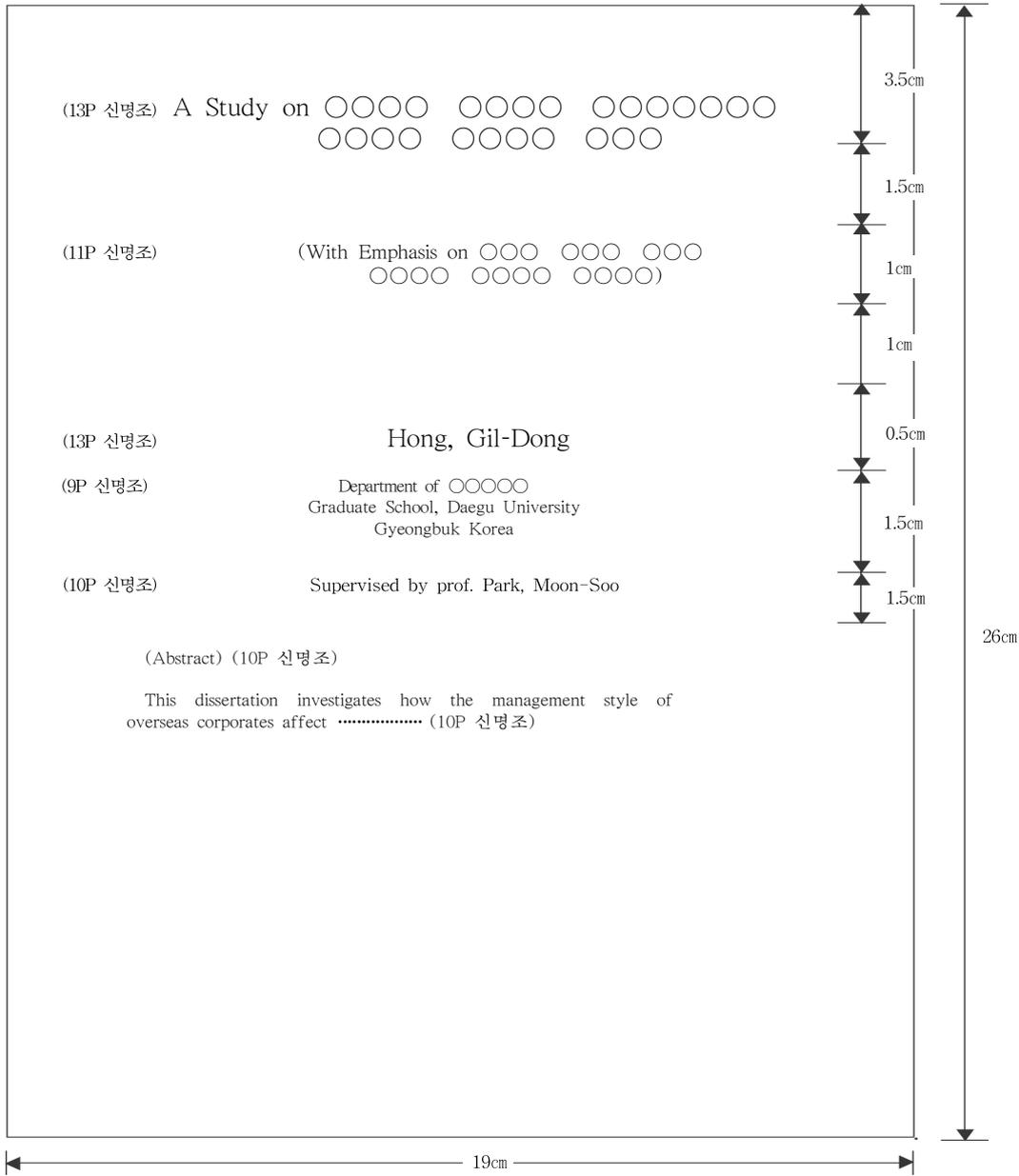
(별지 2)

석사학위논문 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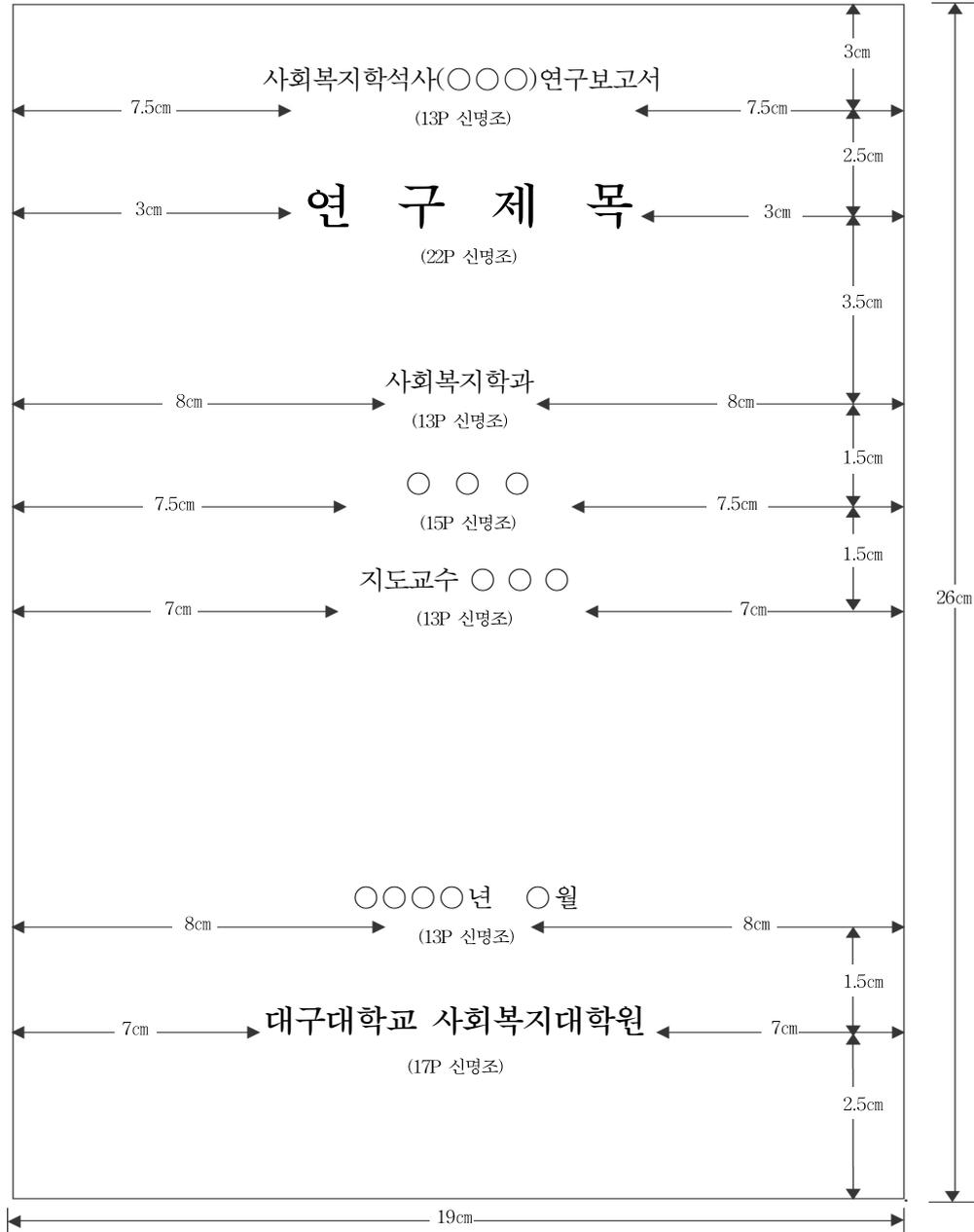
(별지 3)

영문초록양식



(별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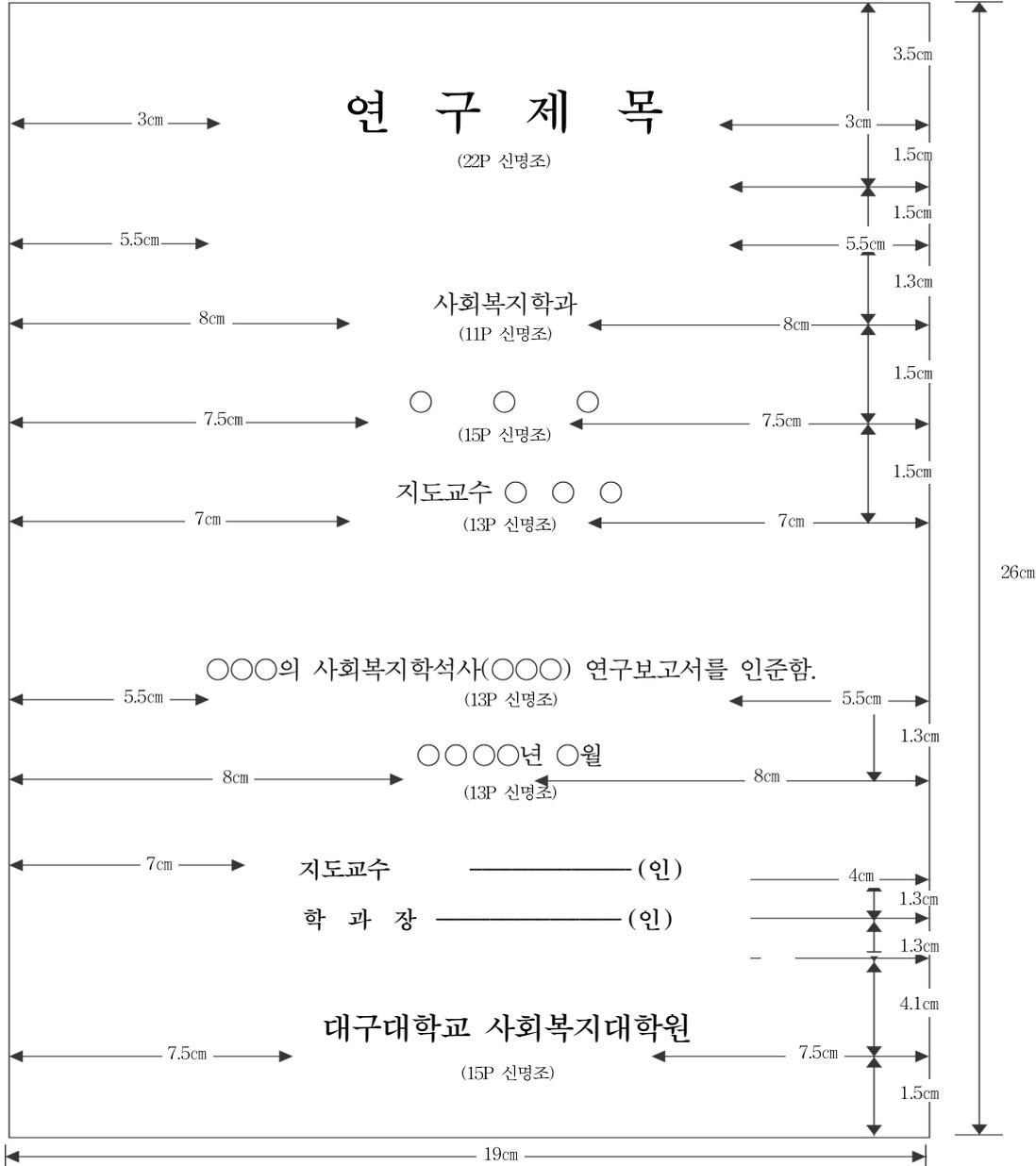
비논문학위과정 연구보고서 표제지 양식



* 제출년도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6월 또는 12월로 표기

(별지 5)

비논문학위과정 연구보고서 내표지



(별지 6)

국문초록양식

